호남대, 돌봄 필요 노인·장애인 고립감 해소 앞장

RISE사업단, 31개 시설 707명 대상

두달간 '찾아가는 힐링 나들이' 교육

만족도 97.4점…특성 등 반영 긍정

호남대학교가 최근 광주 지역 한 노인시설을 방문해 '찾아가는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호남대학교 제공〉

호남대가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의 고립감과 불안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RISE사업단은 광주 지역 31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707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힐링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서적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이 커져 호응을 얻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돌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6.1%인 804만가구에 달할 만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호남대 RISE사업단은 9월8일부터 10월30일까지 노인시설 651명, 장애인시설 56명 등 총 31개 시설, 707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융합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과 정서적 불안 해소를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 기관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만족도는 97.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항목은 9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용자 특성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긍정적인 반응의 주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육시간'과 '재참여 의사'가 98점으로 높았고, 특히 노래와 함께 하는 체험형 교육이 신체·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강명희 참뜻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은 "찾아가는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리 활동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제평 호남대 RISE사업단장은 "대상자의 인지·신체 기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교육의 효과성과 지속 운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신체·정서적 문제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일상생활에서부터 건강한 습관을 지키고 이를 통해 사회 참여가 가능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道교육청, 지속가능 '농산어촌유학' 정착 온 힘

구례 중동초교서 발전 방안 등 논의

문화예술교육 확대·환경개선·협력 등

유학 지속성·공동체 기반 교육 활성화

최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구례 중동초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유학을 통한 전남형 정주 교육 모델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김대중 교육감은 구례 중동초등학교를 찾아 농산어촌유학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 미래교육 정책을 현장과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 학부모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동초는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농산어촌유학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학교다. 현재 전교생 39명 중 30명이 유학생이며,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연극·오케스트라·영화 제작 등 중동초만의 프로그램은 매년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사례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이 전남의 특성화 교육과 연계될 때 학생 유입에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레디~액션 유학학교'라는 이름처럼, 활기 있는 배움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장기 유학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며 지역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 등은 문화예술교육 확대, 교육환경 개선, 중학교 진학 연계, 장기 유학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참여 확대,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 유학의 지속성과 공동체 기반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한 학부모는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교육의 힘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중동초를 방문해 서울 출신 유학생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고 농촌 유학에 대해 얘기하고 도농간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구례군에는 총 87명의 유학생(서울 출신 45명)이 재학 중이며, 전남교육청·구례군·서울교육청이 협력해 체재비와 정착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중동초는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농산어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전남형 정주 교육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광주 자치학교 내년 201개교 확대

학교별 교육과정 자율 설계·운영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형 미래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학교를 201개교까지 확대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치학교는 각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2023년 공모를 통해 107개교의 자치학교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41개교, 2025년 163개교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내년 자치학교 운영 희망 학교를 모집, 올해보다 38개교(23.3%) 늘어난 201개교가 참여를 신청했다. 이는 2023년 첫 출범 당시(107개교)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자치학교는 교육주체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실제 시교육청이 올해 자치학교로 운영된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4%가 계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만족도 역시 전체 응답자의 80%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제초등학교의 경우 '연제교육공동체'를 주제로 교육주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참여 학생의 96%, 교직원은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자치학교는 학교급·규모에 따라 1천만-2천900여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사회·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서 '자치학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 자치학교 성과와 내년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 /박선옥 기자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초·중 농학생 국어교육교재 개발

조선대 언어융합연구소가 초·중등 농학생을 위한 국어교육용 교재를 개발했다.

22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교재는 농학생의 실제 학습 환경을 반영해 설계됐으며, 수어 기반 학습 방식을 도입해 높은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수어를 중심 언어로 설정하고 국어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계했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30시간 분량의 전사된 수어 코퍼스를 기반으로 핵심 어휘를 추출하고, 농인의 흥미와 실제 언어 사용 맥락을 반영한 콘텐츠를 구성해 학습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이중 언어 학습 체계를 채택하고, 학습자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수어로 표현해 보는 활동 등을 포함해 자기표현 능력과 한국어 이해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등 교재의 경우, 언어 교육을 넘어 문학적 감수성 및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학습자들은 시 감상 활동뿐 아니라 직접 수어시를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형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 언어 활용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교재는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언어융합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최영주 언어융합연구소장은 "향후 영어 교재 개발도 추진하는 등 맞춤형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